

되었다.

磨崖佛에 佛閣을 架設하고 岩石 上面에 排水溝를 設置하는 例는 없는 바 아니나 如來像 東側에 高一四二cm 幅一二一cm의 方區를 九cm 깊이로 파고 이 如來像에 關한 興味 津津한 事緣이 刻字로 되어 있다. 碑文은 다음과 같다.

夫此山祖德裕而連脉於智異者也名曰以女院取諸何意」路傍石面有女像影刻又閣而庇之破瓦遺礎尙存焉蓋」想因此錫地名者也然則其誰之像也謹考雲城誌有曰」在昔洪武十五年辛巳未我」聖祖受鉞東征之時登臨于此時上則有一道姑告以大」捷日時因忽不見此直山神之顯靈也明矣耶以有影」其像而奉之信有瞻慕之蹟也 古老相傳之說至于」今五百餘年而不泯然閣廢而只存遺像未免風雨之所」侵撲亦爲蠹蝕而掩眞影曷勝歎載餘有興感於斯趨而」一番之洗而看之則完然如觀山神之眞面目矣於是乎」名工捧匠仍舊礎而棟焉掛新櫺而瓦之煌然有政觀之」效嗚呼與廢數之存焉豈敢有微誠之可稱載

光武五年辛丑七月 日 通政大夫前行羅州鎭石營將

雲峰縣監 朴貴鎭記

이와같은 事由로 因하여 이 고개는 「女院峙」라고 부르게 되었던 듯하며 이 地方에서는 지금도 이 像을 「女像」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嚴然히 如來像이며 그 造成도 羅末麗初로 보여지니 「道姑」의 傳說은 믿기 어렵다. 「五百餘年」前 일은 고사하고라도 縣監 朴貴鎭이 이를 보고 「山神之眞面目」이라고 感嘆한 것은 佛像에 對한 無智의 所致이려니와 苦笑를 禁치 못한다. 佛閣의 施設도 「洪武十五年」(碑文에 十五年은 十三年 같기도 하나 모두 辛巳年은 아니다. 무슨 착각일 것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柱礎와 排水口 等 一連의 施設은 創設當時의 것으로 보여진다.

〔追記〕 이 곳을 調査한 時間은 해가 막 西山으로 넘어간 때였음으로 充分히 調査할 時間이 없었고 따라서 碑文에도 誤讀이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佛像 前面의 埋沒된 部分과 아울러 建物址의 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고 碑文도 精讀하고자 한다. 「女像」의 存在를 알려준 南原教育區 崔重烈氏에게 感謝하는 바이다.

〔註〕東國輿地勝覽 雲峰縣 山川條에 女院峴 在縣西七里 南原府界로 있고 同條條에는 女院在女院峴下라고 있다.

風納里 土城內 住居層

金 元 龍

서울市城東區 風納里(舊廣州郡) 漢江南岸에 있는 土城址는 百濟時代初期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 城內에서의 住居歷史를 밝히는 한편 三國時代初期의 土器相을 正確히 把握함을 目的으로 十月十六일부터 三十一일까지 서울大 考古人類學科 三學年 野外考古學實習을 兼하여 城內 數個所를 發掘調査하였다.

이 土城은 漢江의 水流와 平行하여 砂土와 粘土로 쌓은 細長한 長方形 平地防堤이며 東西壁길이 一·五km, 南北壁길이 三百m 쯤되는 比較的 넓은 聚落址지만 洪水에 依해 漢江에 面한 北壁의 大部分이 잘리워 나가고 있다.

이 地帶는 表土에 乙丑年(一九二五年)大洪水時의 白砂層(二〇—五〇m)이 덮히고 그 밑에 赤褐粘土層(最深二m以上)이 있고 바닥에는 굵은 砂層이 나오는 大體로 三層을 이루고 있는데 地下水는 이 砂層에서 나오며 表土에서의 깊이가 三·二m 程度이다. 城內에는 最近 急激히 家屋數가 增加하고 있으며 餘他的 土地는 모두 野菜田化하고 있다.

이번 發掘에서는 이 城內 東半部 七個所에 瓦片을 판것에 不過했다. 地表에서는 現代陶器, 李朝末期磁器, 三國時代土器片이 나오나 攪亂되지 않은 地點에서는 地表나 白砂層에는 一切 遺物이 없고 粘土層에서 三國時代土器片만이 나오고 있다. 이 粘土層은 洪水로 因한 堆積層인데 中間部에서 漂流해온 것이 分명한 櫛文土器文化의 打製礫石斧도 있으나

地表下二・八m 粘土層最底部 即 最下 砂層直上部에는 爐址 또는 居住面이라고 생각되는 燒土層이 多量의 木炭과 함께 나오며 그 면에서 瓦片, 格文, 繩蓆文里灰色硬陶 및 無文混砂褐陶片들이 갈려서 나오고 또 形鐵製적쇠도 나오고 있다.

土器는 金海土器와 同質이지만 그와 함께 刻線文을 가진 古新羅式土器片도 間或 나오고 있으며 特異한 것은 몹시 壁이 얇고 內外面에 珉를 바르고 반들거리게 磨研한 黑色磨研土器 即 中國의 黑陶式土器가 나오고 있어 注目을 끌었다.

이번 發掘은 앞으로 西半部에 對한 發掘을 完了한 뒤에 仔細한 報告書를 내놓을 豫定이지만 이 地帶에 石器人이 없었고 三國時代初期人들이 처음 자리 잡았다가 大洪水로 밀려 나간 뒤 李朝最末期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發掘된 土器片들을 調査研究함으로써 아직 모르고 있는 事實들이 앞으로 밝혀질 것을 期待하고 있는 바이다.

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

黃 壽 永

最近 忠淸道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高麗靑銅金鼓 大小 二個를 市內 古物商에서 注目한 바 있는데 그中 大形品에는 陰刻銘文이 있어 金石遺文의 新例로 이곳에 紹介하여 둔다. 이들 兩個는 同一場所에서 동시에 發見된 것으로 추측될뿐 다른 知見은 알 수가 없었다.

形態는 모두 우리나라 羅麗禁口의 一般型으로서 鉦鼓形의 圓盤을 이루어 表面은 平坦하고 裏面은 좁은 口緣만이 內側으로 달려 있는 通式에 속한다. 오랜 土中으로 全面에 靑鏽가 덮혀 있는데 側面에는 兩耳가 달려 있어 懸架 實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表面은 太細三重線으로 內外로 區分하였는데 內區에는 子房과 蓮花紋을 外區를 돌아서는 雲文을 각기 陽刻하고 있다. 側面에는 두 줄의 線條를 돌렸으며 그 內緣을 돌아

다음과 같은 一行의 銘文이 있다.

貞祐四年丙子三月□□寺匠納半子重六斤棟梁

貞祐는 金宣宗의 年號로서 그 四年丙子는 高麗 高宗三年 서기 一一一六년에 해당한다. 寺名은 不明이며 半子는 金鼓를 가리키는 文字로서 正豐五(二六〇)年銘 金鼓①에서 唯一의 같은 使用例를 볼 수가 있다. 이 半子는 金鼓銘에서 보이는 飯子 盤子 鉦子 般子 般子②와 同音異寫인 巴國內에서 「半子」의 新例를 얻는 것은 上記 正豐銘品이 日本으로 流出되어 있음에 한층 貴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重六斤이라 있음에서 中品임을 알 수 있고 棟梁以下는 人名인 듯하나 判讀할 수가 없다. 徑 三・二cm 側幅 七・五cm 로서 保存이 完全하다.

〔附〕無銘小品의 形態나 表面의 彫飾은 全히 大型品과 同一하다. 徑 二・〇cm 側幅 三・七cm.

註

① 拙稿·高麗正豐銘金鼓(本誌五一八一九六四·八)

② 拙稿·新羅高麗在銘禁口考(黃義敦先生記念 史學論叢)所收 一九

六〇年十二月)

癸丑銘靑磁大聖持鉢

崔 淳 雨

李洪根氏 所藏品中에 佛器로 보여지는 소위 「바릿대」樣式의 有銘靑磁大鉢하나가 있어서 注意를 끌고 있다.

銅器 또는 磁器로 된 大形의 鉢器안에 漸次로 遞減된 同形의 그릇을 大小 五重으로 겹쳐 넣어서 鉢口가 모두 갖진하도록 만들어진 多級一式의 「바릿대」양식의 그릇이 高麗時代의 遺蹟에서 出土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진 사실이였다. 이러한 그릇들은 굽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릇이 겨우 놓일 수 있는 정도로 밑바닥을 편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